

2010-6

2010년 2월 7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서마화 봉지를 위한 은총의술 만들기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3가 85번지 전화: 02)713-5254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서

【 주현절 5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5(통50). 큰 영화로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덧 입춘절기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대지만 봄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도 속히 봄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차갑고,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녹여주시고 참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기도드린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보며, 습관적으로 기도할 뿐 진실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부여받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늑3:22 인도자
♠ 교 독 문 45. 시편103편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김민주 선생 II. 김재홍 목사	
응답송	찬양대
찬 양 458(통513). 너희 마음에 슬픔이 다함께
성경봉독 I. 렘32:6-15 II. 수2:8-13	이승철 학생 박홍재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씀 I. 봄을 세우는 사람 II. 역사의 주체로 서다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거동기도 다함께

♠ 특 송	새교우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왜곡된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를 주눅 들게 하던 부정적인 편견을 떨쳐내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나만이 귀한 존재가 아니라 너 또한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월례예배	교회 바로 세우기: 애베소서 공부
주관 : 1남, 1·2여선교회	기도 : 이영란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장영숙 전도사	홍순구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하현철	정원석	김현영	박경원	서정순
	현금위원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믿/을/으/로/읽/는/글/

청지기 역할을 넘어 중추신경의 역할을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초신경계인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고, 몸을 위기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정보지시를 총괄하는 중요한 신체기관이다. (중략) 신체부위의 활동과 기능을 조정하고, 감각기관의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신체기관은 중추신경계뿐이다. 만약 중추신경계가 획득한 각종 정보와 종합 지식을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중추신경계 자신의 세포조직과 기관을 강화하는 데 이기적으로 독점 사용한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김경재)

신학자 김경재 교수는 물리학자인 장희익 교수의 ‘중추신경계 비유론’을 신학적으로 해석 적용하였다. 중추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식하는 유일한 신체기관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추신경은 병에 걸린 부분이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신체 대부분의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하여 몸 전체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자본과 효율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명과 평화를 실현해 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계의 ‘중추신경’이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연약한 곳을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역할을 지니고 있다. 또한 되도록 많은 자원과 선한 힘들이 가장 연약한 곳에 전달되어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전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하는 소명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인지해야 할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디일까? 자연재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티는 우리 지구마을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곳이다. 만성적인 가난과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주민들 역시 가

장 연약한 부분이다. 먼 나라뿐만 아니라, 겨울철 철거로 엄동설한에 쓱겨 난 이들을 비롯하여 누구도 쉽사리 관심을 쏟지 않는 우리사회의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 모두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다. 동정과 연민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이자 우리의 한 지체인 이웃이기 때문이다. 중추신경의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할 이웃이다.

또한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 역시 우리의 자원과 선한 의지로 보살펴야 할 이웃이다. 그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環境)이나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생명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웃인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정했던 정복자 모델, 관리자 모델, 청지기 모델을 넘어 중추신경 모델은 인간과 모든 생명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중추신경계는 영양소를 독점하거나, 정보판단능력을 악용하여 자기만을 강화하지 않는다. 만일 중추신경계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포조직과 기관만을 강화한다면 우리 몸은 문제가 생겨 병이 들거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추신경으로서의 역할을 잊고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 역시 병들고 불균형한 사회가 되는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인간은 누구나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 욕구를 사람과 생명을 도구화하고 타인의 인정과 추앙을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고통 받는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중추신경역할을 인식하여, 물질적 탐욕과 권력에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달란트와 자원, 기회를 우리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웃과 생명을 보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진정한 축복의 삶을 추구하는 길일 것이다.

■ 마/음/으/초/읽/는/글

체셔 고양이와 앤리스의 대화

이상한 나라의 앤리스가 체셔 고양이에게 묻는다.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하는지 알려줄래?”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있어.”

“난 어디든 상관없어.”

고양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길로나 가도 돼.”

앤리스가 설명을 덧붙였다.

“……어디든 도착만 한다면.”

고양이가 말했다.

“아, 넌 틀림없이 도착하게 되어있어. 계속 걷다보면 어디든 닿게 되거든.”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기석	부담임목사	김재홍	원로전도사	박옥식
전 도 사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 로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 휘	윤주원	안홍숙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오진훈			도서관장	박혜경

◇ 현금영수기 ◇

십일조현금:

장영숙 방문성 박혜경 한상익 정영선 김인걸 문영혜 강미선 김순복
 전영웅 김일랑 이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박영희 방민 배삼순 권호진 박경원 방준 오진훈 노순옥 이영우
 전혜리 박지인 김혜영 김신옥 원인해 이한림 김명희 김정애 안정숙
 홍복선 강순배

월정현금:

김명순 이교영 김용태 박정숙 박범희 박미영 배부례 서정순 안길상
 이형숙 이갑재 이재구 황선희 장재영 김재영 조병주 이영우 정연희
 이경남 유지은 이증자 김창경 박은정 김순자 김현영 정원석 박상규
 김시영 백혜성 무명1

감사현금:

황경순 이순정 손성윤 방민 김근종 정옥영 이증자 오현창 이주희
 박권동 김순복 최숙화 김정길 최종훈 김금하 전성오 김정애 곽혜자
 강지은 이건화 박소진 전혜리 한상경 무명4 문미대자

생일감사현금 이준희

녹색꿈현금 안종일 정현주 이나단 이우엘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쉼	쉼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 / 소 /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오늘 오후집회는 1남, 1·2여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 수요집회 : 2월 수요집회는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이성운 전도사가 인도 합니다.
3. 다음 주일 예배 : 설날 연휴 관계로 1,2부 연합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식당 운영은 쉽니다.
4. 설날예배순서지 :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가정은 1부씩 가져가십시오.
5. 신앙실천 : 성경읽기와 성경공부에 더욱 열심을 냅시다. 매일 시간을 구분 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 식사대접 : 김지호 전혜리 (결혼 감사)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다음 주 : 예루살렘 속)

* 설거지 봉사 : 이국노 김민화 박시내 (다음 주 : 정희온 전충길 남창모)

새교우 소개

허정호 (2여)

유병선 (4남)

정현선 (8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